

시정질문(답변)서

【주민생활지원국】

□ 질문의원 : 김승동 의원

- 단독택지지역내의 경로당 부재에 따른 대책 방안은?
• 신축 또는 임대 방안은?

(답 변)

- 부천시의 경로당 수는 현재 335개소로 원미구 148개소, 소사구 98개소, 오정구는 89개소입니다. 경로당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액은 금년도의 경우 16억 6500만원임.
- 그동안 경로당의 증가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264개소이던 경로당 수가 2005년에는 322개소로 5년간 58개소의 경로당이 일정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증가되었던 것이 사실임.
-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2006년 1월 경로당 통합운영 및 기능 활성화 방침을 마련하여 노인인구수를 경로당 수로 나눈 수치가 200인 미만인 동의 경로당 신설을 억제하고 있으며, 상2동 벚꽃마을과 상3동 호수마을 지역도 여기에 속하는 지역임.
-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보니 신도시 지역의 단독택지지역뿐만 아니라 구 도시 재개발지역 등도 경로당 신설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, 방침 및 예산 수반 등의 문제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, 인근 경로당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.

- 앞으로도 단독 택지지역에 거주하시는 노인들 중 경로당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인근지역 경로당 이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, 노인들의 여가활동 및 쉼터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대처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음.
- 현재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대표적 시설로 기존에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활동의 장으로 여겨졌던 공간이 점점 활동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과도기적 단계임.
- 향후 우리시에서는 경로당의 숫자 늘리기 보다는 지역의 소규모 노인 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를 통해 각 경로당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, 경로당이 개방적이고, 활동적 여가복지공간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음.